

트러스톤 재형 다이나믹코리아5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주식혼합형 펀드]

(운용기간 : 2019년06월06일 ~ 2019년09월05일)

○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주)

서울시 성동구 독성로1길 10(성수동 1가)
(전화 02-6308-0500, <http://www.trustonasset.com>)

펀드 운용경과 및 운용계획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러스톤자산운용의 트러스톤 재형 다이나믹코리아50 증권자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올려 드립니다. 저희 트러스톤자산운용을 믿고 소중한 자산을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롱숏 전략은 매수와 매도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구축하여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시장의 하락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합니다.

트러스톤 재형 다이나믹코리아50 증권자 펀드를 한국을 대표하는 롱숏 펀드로 키워내겠다는 초심을 다시 떠올리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모든 고객님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지난 3개월간의 운용성과와 향후 운용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운용경과

지난 3개월(2019.06.06 ~ 2019.09.05.) 동안 트러스톤 재형 다이나믹코리아50 증권자 펀드의 수익률은 -3.30%로 동 기간 비교지수[(KOSPI × 20%) + (KIS국고채1-2Y × 80%)]의 0.02% 대비 -3.32%pt의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식]

주식시장은 미중무역분쟁 격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이슈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 영향 등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국내 수출증가율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9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부정적인 모습 지속하였고, 국내 고용은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세를 지속하며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12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 이후 12월에는 나머지 1,560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정하며 다시금 분쟁 격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둔화된 2분기 GDP 성장을 발표, 장단기 금리차 역전 등으로 인하여 점증된 경기 침체 우려는 글로벌 증시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부과 예정이던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는 추후 연기되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중 갈등 격화 및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우려로 부진

긍정적 신호가 없는
경제지표

국내 지표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지속 감소하며 9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고용 지표도 부진 하였습니다. 다만 생산 및 투자 지표는 소폭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 수출액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하락, 지역별로는 대중수출과 대미수출 모두 부진하였습니다. 고용지표는 취업자수가 양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제조업 고용이 여전히 감소세이고, 20~40대 청장년층 고용률 둔화 및 고령층 위주의 취업자수 증가, 단기근로자 중심의 증가임을 볼 때 고용의 질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업종
강세
보험, 항공 업종
부진

시장부진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반도체 업종은 해당 기간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주식 시장 주요 하락 요인 중 하나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였음을 감안하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가격 전가가 가능할 만큼의 경쟁력을 국내 업체들이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같은 내용에 의한 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항공 업종은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업종이기에 명암이 갈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환율 평가절하 수혜가 기대되는 자동차 업종의 수익률도 양호하였습니다. 보통 방어주로 인식되는 보험 업종의 경우 이번엔 반대로 부진하였는데, 이는 금리 하락과 실적 부진 우려에 기인하였습니다.



**급등락하는 주식시장을
역발상으로
활용하였으며
연간 목표 수익률
달성 가능**

동 펀드는 6월에 양호하였고, 7~8월에 부진하였으며, 9월에 다시 개선세에 있습니다. 6월 시장 반등은 수익률에 잘 활용하였으나, 7월 급락에 좀 더 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주식 편입비가 여전히 여유가 있었기에, 8월 중에 한 차례 더 상향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비중 높은 투자가 기여하였으나, 방어주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보험업종의 큰 부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개별주식 섹(매도) 종목들의 경우 6~7월에 걸쳐 큰 기여를 하였으나 돌이켜보면 청산 시점이 조금 일렀던 감이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요약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했던 3개월이었습니다. 다만 펀드는 시장의 변동성을 역발상적으로 잘 활용하였고, 극도의 공포심리도 찾아들고 있기 때문에 펀드의 연간 목표 수익률 달성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기본 원칙 고수하여
안정적 수익 향상을
위해 노력**

종목 선정에서는 여전히 롱(매수) 포트폴리오는 철저하게 1. 기업 고유의 성장성과 2. 현금흐름의 지속성에 주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종간 순환매 추종은 지양하되, 최근 각 종목별 추가 변동성이 큰 만큼 이로 인해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섹 포지션 비중은
낮춰야 하는 시기**

지난 3개월 특히 코스닥의 급락으로 과대 평가 논란이 일던 많은 주가들이 하락하였습니다. 섹(매도) 포지션 비중은 낮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채권]

**금리 하락
장단기 금리차 확대**

지난 3개월(2019.06.06 ~ 2019.09.05) 대내외 경기 둔화 우려, 완화적인 통화정책, 미-중 무역 분쟁 및 한-일 무역 갈등 등 영향으로 채권시장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분기 중 정책당국자들의 과도한 시장 금리 하락에 대한 경계성 발언으로 채권시장은 강세 일부를 되돌리기도 하였습니다. 분기 전체적으로는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장단기 금리 차이는 소폭 확대되었고 크레딧 채권(신용 채권)은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대내외 통화정책
완화 시그널
금리 하락**

분기 초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점도표 상 17명의 위원 중 8명이 연내 정책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강세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여력이 많지 않다는 발언을 하였고,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과 볼러드 총재도 과도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는 발언을 함에 따라 금리는 상승 전환하며 그 동안의 강세 중 일부를 되돌렸습니다. 하지만 호주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정부가 성장-물가 전망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미중 무역분쟁 격화
금리 하락**

분기 중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완화적 기조를 이어갔고,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함에 따라 강세 출발하였습니다.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예상(시장 예상 8월 인하)보다 빠른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됐으며 성장-물가 전망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9월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함에 따라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금리 하락
장단기 금리차 확대**

지난 3개월(2019.06.06 ~ 2019.09.05) 대내외 경기 둔화 우려, 완화적인 통화정책, 미-중 무역 분쟁 및 한-일 무역 갈등 등 영향으로 채권시장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분기 중 정책 당국자들의 과도한 시장 금리 하락에 대한 경계성 발언으로 채권시장은 강세 일부를 되돌리기도 하였습니다. 분기 전체적으로는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장단기 금리 차이는 소폭 확대되었고 크레딧 채권(신용 채권)은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국고 3년 기준
0.288%p 하락**

결국 국내 채권금리는 2019년 9월 5일 현재 국고 3년 만기 기준 2019년 6월 5일 대비 0.288%p 하락한 1.252%로 마감하였습니다. 동 기간 중 장기채권의 상대적 약세로 국고채 3년과 10년의 금리 차이는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국고채와 회사채의 금리 차)는 전 기간 대비 확대되었습니다.

**국고채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
안정적 이자수익**

동 기간에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및 대내외 경기 둔화 우려, 무역 분쟁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분기 후반에 채권 공급 우려와 미-중 무역 협상 재개에 따른 위험자산 랠리가 나타나면서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채권 듀레이션을 늘려서 운용하되, 변동성 장세 속에서 금리 상승 위험을 분산하는 대응이 유효한 기간이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 펀드는 국고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제고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2. 운용계획

[주식]

**고배당 우량주에 대한
투자 매력은
어느 때보다도 높음**

현재 KOSPI의 시가 기대 배당수익률은 2.4%로, 채권 금리보다 높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이미 하락했다는 점까지 감안해 보면 고배당 우량주의 경우 현재 투자 매력도가 매우 높습니다.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KOSPI 이상의 배당 수익을 노려보고자 합니다.

**유가 상승이
화학 제품의
재고 확충 수요
유발 가능**

급등 후 재차 하락하기는 했지만 유가의 반등 또한 관련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석유를 기반으로 한 화학 제품 등의 현재 재고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단기 수요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했다고 판단되며, 전반적인 제품 가격 상승은 재고 확충의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추세적
반등을 기대하기 보다는
탄력적인 주식 편입비
전략을 유지**

물론 이와 같은 국지적인 조건의 개선들이 지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안, 한일 관계 추가 악화에 대한 두려움 등을 모두 이겨내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광범위한 재화/서비스의 수요 둔화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 경제지표의 개선 및 기업 실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우 좁은 KOSPI 트레이딩 구간을 설정하고 상승시 매도, 하락시 매수하는 주식 편입비 전략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채권]

경기 둔화 우려
안화적 통화정책
비우호적 수급

펀더멘털 상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관세 부과 및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기업의 투자결정 지연 및 제조업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제조업 기업이 이익 감소 및 둔화 장기화가 고용 약화로 이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서비스업도 둔화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대내적으로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입니다. 정책 측면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유럽 중앙은행은 안화적 태도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를 포함 주변국들 중 여력이 되는 국가들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등 전반적으로 정책도 우호적으로 판단됩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하반기 국고채 발행 계획이 상반기 대비 축소되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국채 발행 규모가 커졌고 외국인 투자자의 현/선물 매도가 지속되고 있어 수급은 비 우호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면 채권에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급 부담 감안 시, 제한적인 범위에서 강세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고채 중심의
안정적 운용 계획

이에 따라 채권시장은 제한적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당분간 국고채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운용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고채 금리 수준이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점차 국고채 대비 높은 보유이원(만기 보유시 이자 발생)을 가진 우량 크레딧 채권(신용 채권)에 대한 매수를 고려해 봐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운용은 보수적인 듀레이션 및 만기 전략을 통해 대응하고 우량 크레딧 채권(신용 채권)의 비중을 확대하여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향상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내재가치 이하에서 투자”한다는 운용철학을 견지합니다. 저성장에 따라 자본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수익률을 제고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장환경을 충분히 인지하고 다양한 전략과 대응을 통하여 펀드의 안정적인 수익률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을 통해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고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며, 다음 분기 보고서에서도 좋은 수익률로 찾아 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객님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도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신운용부문 CIO 황성택
채권&솔루션부문 CIO 손석근
주식운용AR본부 AR팀장 이무광
주식운용AR본부 AR팀 차장 김호운
주식운용AR본부 AR팀 차장 김내혁
채권운용본부 1팀장 문성호
채권운용본부 1팀 부장 진재식 拜上





목 차

1. 펀드의 개요
2. 수익률 현황
3. 자산현황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5. 비용현황
6. 투자자산매매내역
7.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8. 공지사항

〈참고 - 펀드용어정리〉

1. 펀드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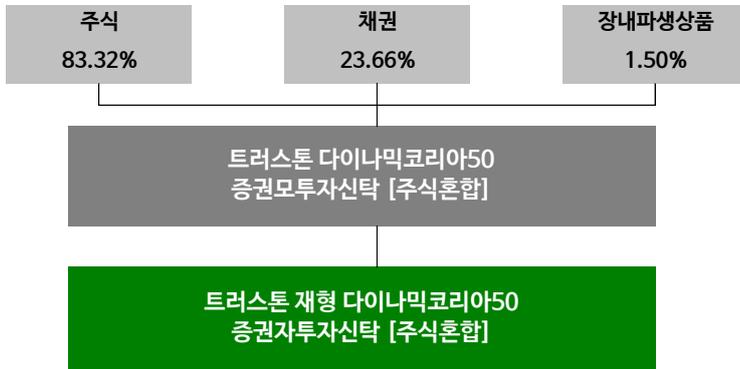
■ 기본정보

적용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투자위험등급
트러스트재형다이나믹코리아50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		AG121	5등급 (낮은 위험)
펀드의 종류	주식혼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최초설정일	2013.03.06
운용기간	2019.06.06 ~ 2019.09.05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트러스트자산운용(주)	펀드재산보관회사	기업은행
판매회사 ^{주)}	www.trustonasset.com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투자신탁재산의 50%이상을 주식 등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95%이하를 국내채권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 - 시장상황에 따른 주식시장 노출도 조절과 개별주식 통신택으로 코스피 대비 변동성 축소 - 저평가된 채권을 발굴하여 상대가치 투자를 하고 금리 전망에 근거한 듀레이션 조정을 통해 자본이익 달성 추구		

주) 판매회사 : 자세한 사항은 트러스트자산운용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구성



주) 위의 결과는 해당 자펀드의 실제 자산보유 내역을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펀드의 자산구성 내역을 해당 자펀드가 각 모펀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안분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익증권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와 비교하여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산현황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트러스트재형다이나믹코리아50 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	자산 총액 (A)	38	39	0.53
	부채 총액 (B)	0	0	2.28
	순자산총액 (C=A-B)	38	38	0.53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34	36	3.96
	기준가격 ^{주)} (E=C/D×1000)	1,119.10	1,082.16	-3.30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수익률 현황

■ 기간 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트러스트재형다이나믹코리아50 증권투자자산탁 [주식혼합]	-3.30	-3.77	0.29	-2.96
(비교지수 대비 성과)	(-3.32)	(-3.44)	(-0.55)	(-2.41)
비교지수(벤치마크)	0.02	-0.32	0.83	-0.55

주) 비교지수(벤치마크) : 국고채권 1-2년 X 80% + KOSPI X 20%

※ 상기의 수익률은 과거의 운용실적으로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당 펀드는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으로 종류별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트러스트재형다이나믹코리아50 증권투자자산탁 [주식혼합]	-2.96	-2.31	5.84	7.58
(비교지수 대비 성과)	(-2.41)	(-3.23)	(1.27)	(-1.76)
비교지수(벤치마크)	-0.55	0.92	4.57	9.34

주) 비교지수(벤치마크) : 국고채권 1-2년 X 80% + KOSPI X 20%

※ 상기의 수익률은 과거의 운용실적으로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당 펀드는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으로 종류별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1	0	0	0	1	0	0	0	0	0	0	0
당기	-1	0	0	0	0	0	0	0	0	0	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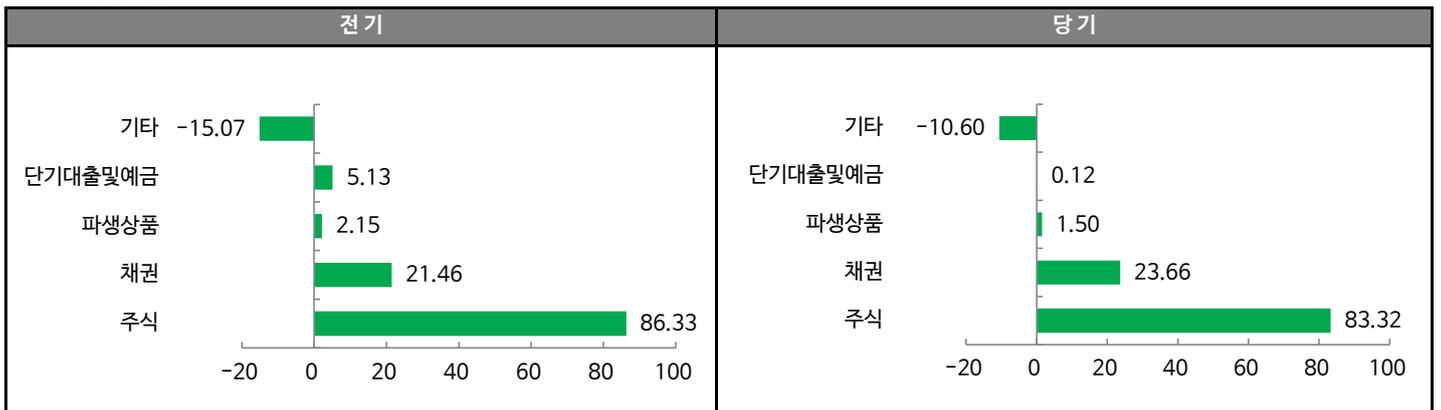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32 (83.32)	9 (23.66)	0 (0.00)	0 (0.00)	1 (1.50)	0 (0.00)	0 (0.00)	0 (0.00)	0 (0.00)	1 (2.12)	-4 (-10.60)	39 (100.00)

* () : 구성 비중



주) 위의 결과는 해당 자펀드의 실제 자산보유 내역을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펀드의 자산구성 내역을 해당 자펀드가 각 모펀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익증권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와 비교하여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순포지션 비율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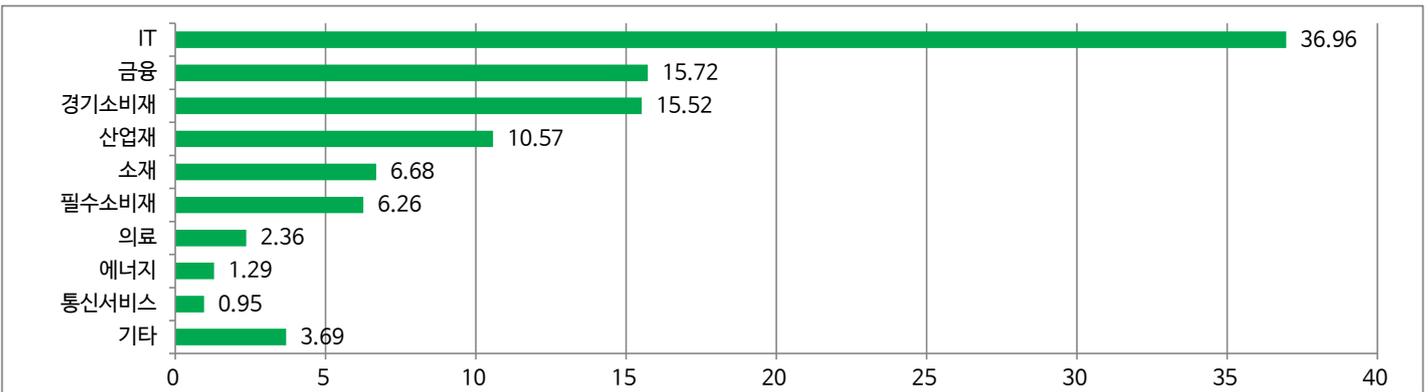
	Long	Short			순포지션	채권	단기상품
	주식	주식	선물	소계			
금액	59,700	7,499	22,102	29,601	30,099	16,950	1,515
비중	84.88	10.66	31.42	42.08	42.80	24.10	2.15

주)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기준

■ 업종별(국내주식) 투자비중: 매수(Long)포지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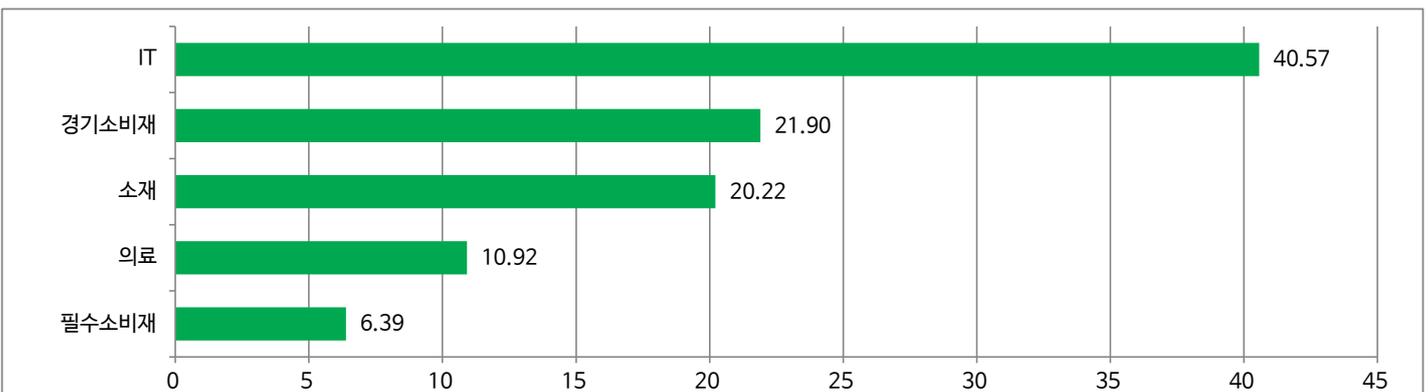
순위	업종명	비중	순위	업종명	비중
1	IT	36.96	6	필수소비재	6.26
2	금융	15.72	7	의료	2.36
3	경기소비재	15.52	8	에너지	1.29
4	산업재	10.57	9	통신서비스	0.95
5	소재	6.68	10	기타	3.69



■ 업종별(국내주식) 투자비중: 매도(Short)포지션

(단위: %)

순위	업종명	비중	순위	업종명	비중
1	IT	40.57			
2	경기소비재	21.90			
3	소재	20.22			
4	의료	10.92			
5	필수소비재	6.39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순위	구분	종목명	비중	순위	구분	종목명	비중
1	채권	국고02250-2106(18-3)	21.83	6	주식	NAVER	2.28
2	주식	삼성전자	17.42	7	주식	메리츠화재	2.23
3	주식	삼성전자우	5.17	8	주식	대림산업	1.93
4	주식	SK하이닉스	4.34	9	주식	KB금융	1.86
5	주식	삼성화재우	2.41	10	단기상품	증거금(CLSA증권)	1.83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주식

(단위 : 주, 백만원, %)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발행국가	통화	업종	비고
삼성전자	147	7	17.42	대한민국	KRW	IT	
삼성전자우	52	2	5.17	대한민국	KRW	IT	
SK하이닉스	20	2	4.34	대한민국	KRW	IT	
삼성화재우	5	1	2.41	대한민국	KRW	금융	
NAVER	5	1	2.28	대한민국	KRW	IT	
메리츠화재	47	1	2.23	대한민국	KRW	금융	
대림산업	7	1	1.93	대한민국	KRW	산업재	
KB금융	18	1	1.86	대한민국	KRW	금융	

주)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

▶ 채권

(단위 :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고02250-2106(18-3)	8	8	대한민국	KRW	2018-06-10	2021-06-10			21.83

주)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단기대출	신한금융투자	2019-06-05	1	1.78	2019-06-07	대한민국	KRW

주)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인력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억원)

성명	직위	출생 년도	운용 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이무광	차장	1980년	18	4,090	7	1,873	2109001374
김호윤	차장	1980년	10	1,275	2	162	2104000074
김내혁	차장	1982년	9	1,221	1	109	2109001541
문성호	부장	1977년	25	4,375	-	-	2109001217
진재식	부장	1979년	23	11,973	1	1,019	2101011621

주)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운용전문인력이며, '책임 운용전문인력'이란 운용전문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펀드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운용자산	구분	기간	운용전문인력
주식	책임운용역	2016.01.20~2018.03.22	최영철
	책임운용역	2018.03.23~현재	이무광
	부책임운용역	2016.01.20~2018.03.22	이무광
	부책임운용역	2018.03.23~2018.05.20	유진형
	부책임운용역	2018.05.21~현재	김호윤
	부책임운용역	2018.05.21~현재	김내혁
채권	책임운용역	2014.09.25~현재	문성호
	부책임운용역	2017.09.25~현재	진재식
	부책임운용역	2017.09.25~2018.02.28	전춘봉

주) 2019년 9월 기준일 현재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5. 비용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트러스트채형다이나믹코리아50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자산운용사	0	0.11	0	0.11	
	판매회사	0	0.13	0	0.13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24	0	0.24	
	기타비용**	0	-0.01	0	0.00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24	0	0.19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2	0	0.03
		합계	0	0.26	0	0.22
		증권거래세	0	0.04	0	0.06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총보수,비용비율

(단위:연환산, %)

	구분	해당 펀드		상위펀드 비용 합산	
		총보수·비용비율	중개수수료 비율	합성총보수·비용비율	매매·중개수수료 비율
트러스트재형다이나믹코리아50 증권투자자산신탁[주식혼합]	전기	0.9481	0.0000	1.0458	0.8509
	당기	0.9481	0.0001	1.0432	0.9425

주1)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주3)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6. 투자자산 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트러스트다이나믹코리아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단위:백만원,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주)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264,637	7,923	336,861	12,427	19.84	78.72

주)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이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트러스트다이나믹코리아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단위: %)

2018년12월06일 ~ 2019년03월05일	2019년03월06일 ~ 2019년06월05일	2019년06월06일 ~ 2019년09월05일
18.59	11.84	19.84

7.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트러스트자산운용은 동 펀드에 고유재산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8. 공지사항

- * 고객님의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 고객님의 가입하신 펀드는 모자형 구조의 펀드로서 이 자산운용보고서에서의 자산구성현황, 보유종목, 보수 및 비용 등의 정보는 고객님의 가입한 트러스트재형다이나믹코리아50증권투자자산신탁[주식혼합]이 투자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트러스트재형다이나믹코리아50증권투자자산신탁[주식혼합]의 자산운용회사인 트러스트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기업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트러스트자산운용(주)
금융투자협회

<http://www.trustonasset.com>

<http://dis.kofia.or.kr>

참 고 :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에서 펀드에 부여하는 고유의 코드이며, 이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설정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익증권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 판매,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판매회사에서 펀드에 가입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실제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는 회사는 집합투자업자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위탁자가 되어 펀드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신탁업자란 펀드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운용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자금은 신탁업자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업자의 위탁을 받아 펀드기준가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판매회사	판매회사란 펀드의 판매, 환매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수수료 비율	해당 운용기간 중 펀드에서 지출되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등의 매매수수료 총액을 펀드의 순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